경동대 신입생 100만원 이상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수혜율 전국 상위권 … 올해 신입생 수시 총 648명 모집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과 반값 등록금 실현에 부응하고,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의 학자금 보전 차원에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등록금의 25~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등록금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그친 경동대학교는 대학의 재정 내실화 속에서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재학생 1인당 173만원)을 꾸준히 늘려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동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입생 전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기숙사 입사 혜택과 함께 기숙사 관리비(4년간 240만원 상당)를 면제해 주는 장학혜택을 부여해왔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매년 경동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재학기간인 1학년 중 싱가포르로 해외어학연수와 문화탐방의 장학제도를 실시해 왔다.

경동대는 그동안 펼쳐온 이같은 장학제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장학금 수혜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일부 장학 대상자(이중 수혜자)를 제외하고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비전 컬리지스(Vision Colleges)라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외국어 교육 제공과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하고자 해외 단기어학연수와 경동 월드비전(해외 탐방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혜택)등의 기회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고교 내신 및 수능 성적(특히, 수능 1개 과목만 3등급이어도 1개 학기 200만원 장학수혜)에 따라 지급하는 우수 신입생 장학금을 비롯해 미래 인재육성 장학금, 경동가족(형제자매) 장학금, 면학격려 장학금, 디자인 공모전 장학금, 설악권 인재육성 장학금, 설악권 향토 장학금, 우수 입학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경동대는 올해 신입생 수시모집을 3차례에 나눠 전형하며, 1차 모집은 9월 8일부터 23일, 2차 모집은 10월 10일부터 21일, 3차 모집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648명을 모집한다.

최광호 기자

경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2011년 Green Festival'에서 장기자랑 응원을 하고 있다.

경동대 'Green Festival' 열려

제9대 총학생회 '소통 · 배려 · 화합' 주제로

동해바다와 자연석호가 어우러진 천혜의 그린캠퍼스를 보유한 경동대학교에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011년 Green Festival'이 열렸다.

제9대 총학생회의 슬로건인 '소통 · 배려 · 화합'을 바탕으로 넘치는 끼와 재주를 뽐낸 이번 축제는 첫날인 27일에는 '소통 Festival'로 동아리 대동제와 내 마음을 받아줘 공개고백, 경동달인을 찾아라, 동아리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다.

둘째날인 28일에는 '배려 Festival'의 그린&클린 캠퍼스 캠페인, 요리경연대회 및 경동 댄싱 킹&퀸을 찾아라, 가요제, 경동건전 클럽 등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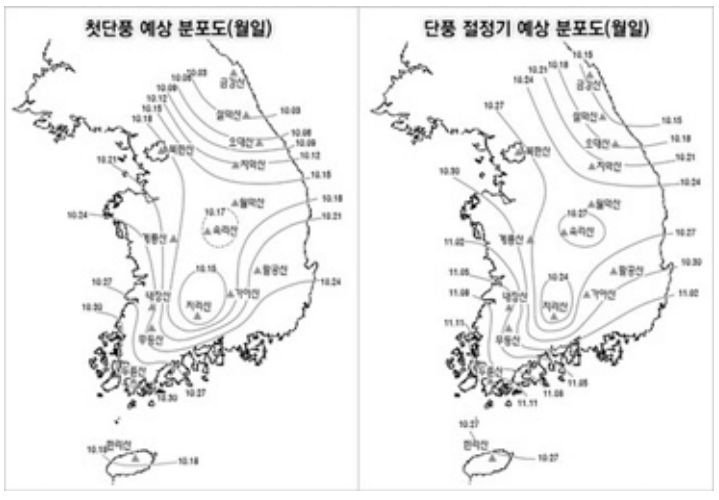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화합 Festival'의 주제로 경동대 아나바다 캠페인, 물총 서바이벌 및 경품추첨, 초청가수공연, 불꽃놀이 등 젊음 패기와 열정을 갖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경동대 관계자는 "이번 Green Festival은 다양한 공연, 문화, 전시행사가 마련돼 주민과 소통하는 축제로 진행됐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설악산 단풍 3일 시작 18일 절정

속초기상대 단풍전망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과 오대산 등에서 지난해보다 1~2일 정도 빠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기상대에 따르면 올 가을 단풍은 10월 3일경 설악산에서 시작돼 중부지방은 3~19일, 남부지방은 13~30일경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풍 절정시기는 10월 중순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은 10월 1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중순 후반~하순, 남부지방은 10월말~11월 상순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광호 기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웰다잉 연극 강의 · 공연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삶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웰다잉 강의와 연극공연를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고성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 및 웰다잉 심리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유언서 작성하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의 시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웰다잉 연극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의 모델링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22]

독립운동가 정 훈 (鄭 薰)

1920년 8. 22 ~ 1973년 9. 13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간성면(杆城面) 광산리(廣山里) 307번지이다.

독립운동당시 활동지역인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서 상해임시정부산하(上海臨時政府傘下)단체인 광복군(光復軍) 제 1지대 본부에 입대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2월 광복군(光復軍) 제 1지대에 소속되어 본부 분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고성군지(高城郡誌)』고성군, 1998, 보정판, p145

–독립유공인물론 5, 국가보훈처, p1071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